

광주 남구 20대·70대 “행복도 낮다”

성인 남녀 518명 행복도 조사

광주시 남구에 사는 20대 청년과 70대 노령층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남구가 광주시 5개 지자체 중 여성비율(52%)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남구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남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주민·공무원 518명을 대상으로 '2023 주민 행복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취약한 분야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행복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진행됐다. '남구에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에 20대(100명)와 70대

2030 정신적 스트레스 ‘최고’...“‘효남구’ 노인정책 치중”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시급...남구, 문화도시 돼야”

(104명)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74명), 10대(68명) 순이었다.

20대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고용불안과 경제적 불안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음에 비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남구가 답답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여가를 즐기기 위해 주로 어디를 가느냐’는 항목에는 서구(156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구(146명), 남구(131명), 광산구(46명), 북구(11명) 순으로 나온 것도 이 분석을 뒷받침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전체 연령대중 2030세대에

서 가장 높았다. 20대는 10점 만점에 5.96점, 30대는 5.95점, 40대가 5.65점, 50대가 5.41점, 60대 이상이 4.71점이었다.

재산 만족도는 30대가 3.83점으로 가장 낮았고 20대(4.59점), 40대(4.81점), 50대(5.00점), 60대(5.52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직에 대한 불안감은 정년을 앞두고 있는 50대(4.9점)가 가장 높았다. 40대(4.40점), 30대(3.82점), 20대(3.81점) 순으로 집계됐다.

또 남구 정책이 노인복지 분야에 치중돼 있어 청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점 등도 이유로 꼽혔다.

70대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로는 이웃과 지역

공동체의 신뢰 관계가 낮은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대간의 단절과 독립세대가 많아져 이웃들과의 교류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남구에 사는 여성의 행복도는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남구에 사는 여성은 남성보다 외로움 지수가 높았다. 또 정책결정 참여 기회와 근로여건과 일·여가의 균형, 여가 및 문화생활, 워라벨 측면에서도 여성의 답변은 모두 남성보다 낮았다.

보행에 대한 불안함, 빈집에 대한 불편과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광주사회조사 보고서에서는 남구의 여성 야간보행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 71.9%로 광주에서 제일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남구의 ‘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남구의 미래상으로는 ‘문화도시 남구’가 되길

바란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쾌적한 자연 환경’, ‘활기찬 복지도시’,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구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는 의료시설과 보육시설, 학교시설 공원·산책로 접근성과 서비스 항목 중에서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 문화여가공간에 대한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4.96점으로 절반을 채 못냈다. 또 공공의 문화여가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숫자는 전체 7.28점으로 높아 문화공간에 대한 갈증을 반영했다.

남구는 “남구 미래상에 문화도시 관련 요구가 많음에도 주민 문화여가 만족도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라며 “문화시설 만족도 및 접근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시설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4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앞에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강제동원 문제를 사죄하고 즉각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제공>

“일 정부, 타라와 섬에 끌려간 조선인 1116명 유해 봉환 힘써야”

시민모임, 故(고) 최병연씨 유해 봉환 주도식서 촉구

일제강점기 타라와 전투에서 숨진 故(고) 최병연씨의 유해가 한국으로 송환된 가운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즉각적인 배상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등은 4일 최씨의 유해봉환 주도식이 열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라와 섬에 끌려간 1117명 중 단 한 구의 유해만 돌아왔을 뿐”이라며 “일본 정부는 남은 유골을 모두

송환하고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16년 ‘제2차 세계대전 전몰자 유골 수습 추진법’을 제정해 유골 발굴시 DNA 대조를 거쳐 유족에게 인도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일본인으로 나올 경우만 인도가 가능하며 한국인은 배제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일본은 죽어서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전몰자를 일방적으로 A급 전범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함으로써 죽어서까지 일본을 위해 충성하도록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이날 열린 유해봉환 주도식에는 일본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유해가 봉환됐으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추도사 한 장 보내지 않았다”면서 “제3차 변제 등 정부의 대일 퍼주기 외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양림동 주민 76% “남구 ‘정율성로’ 존치해야”

명칭 변경 반대

광주시 남구 정율성 도로 인근 주민의 70%가 “정율성로” 명칭을 존치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가 ‘정율성로’ 도로명을 사용하는 양림동 주민 1013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 변경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주민 76.3%가 변경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에 응답한 737세대 중 562세대(76.3%)가 도로명 변경에 ‘반대’, 175세대(23.7%)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정율성로’는 남구가 중국과의 우호 증진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2008년 광주 출신

중국 음악가 정율성의 이름을 부여한 도로명이다.

올해 8월께 광주시가 추진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해 보존부 장관은 정율성이 중공군과 북인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이력을 문제 삼으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가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의 20% 이상이 명칭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모아 남구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뒤 거주민의 50%이상의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도로명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전남교육청 ‘작은학교 교육박람회’ 개최

9~10일 광주 DJ센터서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9~10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전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3 전남 작은학교 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생생공간 작은학교, LOG-IN’이라는 주제로 전남교육 대전환의 희망이 담긴 작은학교의 꿈과 미래를 보여주는 한마당 행사로 펼쳐진다.

박람회는 지역-학교 학생 현장관, 작은학교 주제관, 대전환 주제관 등 다채로운 80개 전시 및 체험 부스로 꾸며진다.

지역-학교 학생 현장관은 22개 교육지원청 50여 개 학교가 힘을 모아 작은학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또 작은학교 주제관은 전남 작은학교, 전남농산어촌유학, 전남학생교육수당 등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작은학교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박람회 기간 중 이종언어 페스티벌, 작은학교 영화제, 온라인 수업 교류 등 전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대비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펼치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전남의 작은학교를 미래교육 선도 모델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진 기자 bigkim@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